

트럼프, 바이든 맹추격...경합주 격차 줄어

6개주 오차범위내 박빙대결 전국단위 여론조사 차이 줄어 격차 여전 상반된 여론조사도 대선까지 남은 2주가 판가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꼭 2주 남겨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맹추격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와의 격차를 점점 좁히며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소스가 지난 13~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서 바이든 후보는 49%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45%)을 오차범위인 4%포인트 앞섰다. 이는 한 주 전 7%보다 좁혀진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의 지난 12~17일 조사에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바이든 후보 49%, 트럼프 대통령 48%로 불과 1%포인트의 오차범위 싸움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모두 경합주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격전을 벌이며 격차를 좁히는 흐름은 선거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RCP가 지난 6~19일 각종 여론조사 취합 결과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전국단위로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비치에서 조기 현장 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플로리다는 미 대선 주요 경합 주(州) 가운데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이 걸린 최대 승부처다. /연합뉴스

51.1%로 트럼프 대통령(42.5%)을 8.6%포인트 앞섰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이라는 악재를 맞은 뒤 지난 11일 10.3%포인트까지 확대된 격차가 줄어든 결과다.

RCP 분석에선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남부 '선클라스트' 3개주 등 경합주 6곳의 격차도 좁혀지는 흐름이다.

이 6개 주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은 전체 538명 중 101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74명 이겼음을 감안하면 바이든 후보가 38

명만 더 가져오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270명을 넘길 수 있다.

RCP 집계로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의 리드 폭은 3.9%포인트에 불과해 전국단위 격차의 절반 수준이다. 이 역시 지난 13일 5.0%포인트까지 확대됐다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7% 안팎의 안정적 우위를 보여온 펜실베이니아가 심상치 않다. RCP 분석에서 펜실베이니아의 격차는 현재 3.8%포인트까지 줄어든 상태다. 또 플로리다 역시 바이든의 리드 폭은 이달 초 4.5%포인트였지만 현재 오차범위인 1.0%포인트에 불과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는 배정된 선거인단이 각각 29명, 20명으로 6개 경합주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성이 크다. 다만 두 후보의 격차가 RCP 결과만큼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맹추격세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선거전문매체 '538'이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리드 폭은 10.3%포인트로 이달 초인 지난 1일(8.2%포인트)에 비해 더 커졌다. 펜실베이니아 역시 우위 폭이 6.4%로 RCP 분석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CNN방송은 6개 경합주를 포함한 경쟁이 치열한 10개 주를 분석한 기사에서 7개 주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다수 지지 속에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대선을 딱 2주 남겨놓은 20일 현재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최소 3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사전 투표자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직 대선 이 2주가 남은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사전 투표 참여자는 기록적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13개 경합주에서는 사전 투표자수가 최소 1580만명을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로 구분된다. /연합뉴스

5년 안에 인간-기계 노동시간 같아진다

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일자리 8500만개 없어져

세계경제포럼(WEF)은 21일(현지시간) 낸 '2020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인간과 기계의 노동 시간이 같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인간이 기계에 점점 일을 내주는 이런 '역전' 흐름은 자동화를 촉진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면서 가속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WEF는 15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 인간의 업무를 기계·기술로 대체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8500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자료 입력, 회계, 행정 보조업무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할이 중요해진 간호사, 식품품질과 우체국 직원, 돌봄 서비스 등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같은 기간 97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콘텐츠 생산,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경제' 등이 새 일자리를 공급하는 산업 분야라고 예상했다.

2년 전 WEF의 예측치(창출 1억 3300만개, 상실 7500만개)와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보다 상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조사 대상 기업(약 300곳)의 43%가 기술 발달로 5년 안에 일자리를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고 41%가 전문 기술은 점점 외주 계약으로 담당하겠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유럽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곳곳 재봉쇄

아일랜드·독일 일부 지역

프랑스·이탈리아는 야간 통금

최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면서 올 상반기 1차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봉쇄 또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BBC 방송에 따르면 미출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19일 밤(이하 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최고 등급인 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22일부터 6주간 재봉쇄에 들어간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운동 등을 위해서도 집에서 5km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집안이나 정원 등에서 이

웃 주민과 만나는 것도 금지된다. 대부분의 비필수업종 가게는 문을 닫아야 하며, 바(bar)나 식당은 포장 영업만 허용된다.

마틴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염 수준을 낮추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모두가 협력한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베르테스가데너란트 지역도 20일부터 2주간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독일에서 지난 4월 이래 봉쇄를 다시 도입한 것은 이 지역이 처음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떠날 수 없으며, 학교·식당·술집·공연장·체육관·영화관·호텔 등도 문을 닫는다. 일부 국가는 고위험 지역 중심으로 봉쇄 전 단계인 통행 금지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방 X선 검사, 70세 이상도 사망 위험 낮춰"

유방암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유방 X선 촬영은 70세가 넘는 여성에게도 유방암 사망 위험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부분의 국가는 유방 X선 검사 연령 상한선을 69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지역에 따라 74세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웨덴 우메오(Umea) 대학 의대 의학-세계보건학 연구팀이 20년간의 유방암 사망자 2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

프레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유방 X선 검사 상한 연령이 74세인 지역과 69세인 지역의 유방암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70~74세 연령층의 유방암 사망률이 69세 이하 연령층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밝혔다. 70~74세에 실제로 유방 X선 검사를 받은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은 27% 낮았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암연구협회 학술지 '암 역학·생물표지자·예방'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MS, 스페이스X와 손잡고

아마존과 우주사업 경쟁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 등과 함께 우주 사업 관련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에서 아마존에 맞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스페이스X가 제안한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들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MS는 이날 상업용과 공공용 우주사업을 겨냥한 계획을 발표하며 아마존을 상대로 새로운 클라우드 전선을 펼쳤다고 저널은 평가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우주 사업 관련 계획을 내놓은 지 석달 만이다.

클라우드 산업에서 1위인 아마존과 2위인 MS간의 경쟁은 최근 수년간 뜨겁게 달아올랐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 속도를 올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연합뉴스



참수 교사 추모...침묵 행진하는 프랑스 시민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의 '교사 참수' 사건이 벌어진 콩플랑 생토노리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침묵 행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이 지역 역사 교사 사뮤엘 프티는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